

출 장 결 과 보 고 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주최 국제 컨퍼런스 참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0. 7.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어 명근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국제 심포지엄 참석

- 주제: Post 2010 Trade Agenda for the Asia-Pacific

2. 장소: 일본 도쿄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

3. 출장기간: 2010. 7. 5(월)~7. 8(목)

4.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5. 출장일정

날짜	이동	일정	비고
7.5(월)	김포→일본 도쿄	현지 이동 및 호텔 투숙	
7.6(화) 09:00-18:30	심포지엄 참석	제1세션-제6세션	
7.7(수) 09:00-18:30	심포지엄 참석 및 토론	제7세션-제10세션, 종합토론	제7세션 지정토론
7.8(목)	도쿄→김포	귀국	

II. 출장 결과: “Post 2010 Trade Agenda for the Asia-Pacific”

- 7월 6일(수) 오전 9시 Masahiro Kawai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ADB) 소장의 개회사로 PECC-ADB-IDB이 합동으로 주최하고 일본 외무성이 후원하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 제1세션(Future Role of WTO)
 - 제2세션(기후변화와 무역정책)
 - 제3세션(투자과 서비스)
 - 제4세션(노동이동)
 - 제5세션(동아시아FTA/아세안+3와 범태평양FTA/아세안+6)
 - 제6세션(아태 경제통합과 라틴아메리카) 별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공개 질의 응답으로 진행

- 7월 7일(수)
 - 제7세션(범태평양동반자;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 제8세션(EAFTA, CEPEA, TPP 및 한중일 FTA와 동북아시아)
 - 제9세션(EAFTA, CEPEA, TPP 및 AEC와 ASEAN)
 - 제10세션(광역 아시아 태평양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

- 제7세션(범태평양동반자; TPP) 주요 내용
 - Yue Chia Siow 싱가포르국제문제연구소(SIIA)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Peter Petri 미국Brandeis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석좌교수와 Deborah Elms 미국Temasek재단 무역협상센터소장이 주제 발표하고 Shujiro Urata 와세다대 교수, Carlos Furehe 미주개발은행(IADB) 조사역, 어명근 KREI 선임연구위원이 지정 토론.
 -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완료한다는 보고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 산하

의 무역자유화가 부진하다고 판단한 칠레와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의 4개국은 2005년 새로운 접근(new approach)에 의한 고품질 FTA(High Quality FTA)를 표방한 P4 출범을 선언

- 2008년 미국과 호주, 페루가 P4에 가입하고 베트남이 업저버로 참석하면서 범태평양동반자(TPP)로 확대; 공산품은 물론 농업까지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추구
- 2010년 현재 2차 회의가 진행된 TPP는 APEC의 전통에 따라 후발 가입국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기존 FTA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에 의한 협상(a completely new approach to negotiations)을 통해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음.
- TPP 개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수많은 FTA가 체결되면서 이른바 'spaghetti bowl'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하였음. 하지만 기존 FTA와의 관계 설정과 완전한 무역자유화의 실현가능성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 하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도쿄에서 "미국도 TPP에 참여하여 회원국들과 21세기에 걸맞는 광범위한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목표로 협력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TPP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¹⁾.

○ TPP의 성격 규정(Deborah Elms소장의 결론)

- 첫째, TPP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

1) "The United States will also be engaging with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countries with the goal of shaping a regional agreement that will have broad-based membership and the high standards worthy of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라 지구상 서로 다른 지역의 국가들을 결속하는 정치적인 관계임.

- 둘째, TPP는 보다 큰 무역자유화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동북아를 중심으로 더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PEC 전체로 확산할 수도 있음.
- 셋째, 만일 TPP가 더 확대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자유화는 제한될 것이며 현재의 7개국 또는 8개국만으로는 향후 유의적으로 확대될 잠재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넷째, TPP는 기존 FTA들의 중복성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TPP 최종 협정에서 기존 FTA 규정의 효과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중복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다섯째, P4는 회원국들간 교역이 거의 없고 소규모, 개방경제(almost no trade between very four, small and open economies)인 탓에 비교적 용이하게 합의에 도달했지만 7개국(또는 8개국)으로 확대하는 협상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더욱 복잡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 요지

- 수준 높은 무역자유화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는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은 어려울 것이므로 TPP 구성보다는 기존 FTA 협정을 확대 또는 심화(expansion and deepening of the existing FTAs) 하는게 선행될 필요 있음.
- 설탕 또는 낙농품 한 품목이 양국간 FTA를 지연시킨 사례가 있을 정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포괄적이고 진전된 형태의 다중 FTA(semi-multilateral FTA)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임. 따라서 회원국들간에 점진적(progressively)이고 지속적인 경제협력(continuous economic cooperation)을 통한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의 바탕위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실행(implementing from possible economies and areas first)하는 방식으로 역내 무역자유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III. 시사점

-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 무역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보고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역내 무역자유화가 수많은 FTA 체결로 대체되는 추세하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를 지닌 싱가포르와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4개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표방하는 P4를 결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 호주, 페루와 함께 P7로 확대하는 동시에 범태평양 동반자(TPP)로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서는 남북미까지 포괄하는 광역 FTA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10년 APEC 의장국인 일본과 2011년 의장국인 미국이 현행 APEC의 평가와 개조 및 TPP로의 전환에 적극 임하고 있음.
-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직접적인 영향에 놓인 우리나라로서는 TPP 회의가 다소 비현실적인 논의로 비쳐질 수 있지만 대세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견해와 입장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이 상 -